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2019. 8. 21 ~ 8. 29,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전 라 북 도 의 회

(환경복지위원회)

Contents

목 차

Ⅰ. 연수개요 1
1 목 적 1
2 현 황 1
3 내 용 1
4 주요일정 2
5 연수자 명단 3

Ⅱ. 연수국가 일반현황 4
1 오스트리아 4
2 슬로베니아 8
3 크로아티아 12

Ⅱ.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17
1 Haus St. Teresa 노인복지센터 17
2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20
3 Frida&fred 어린이박물관 23
4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27
5 RIMAC 자동차 30
6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33
7 Spittelau 쓰레기 소각장 35
8 기타 방문지역 39

Ⅲ. 연수후기 42
〈참고〉 언론 보도자료 45

2019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개요

1 목 적

○ 동유럽 주요 3개국의 국가별 우수 정책현황에 대해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업무의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전라북도의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

○ 선진 우수사례 국외연수를 통해 환경복지위원들의 창의적 인식개선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기여

2 현 황

○ 연수기간 : 2019. 8. 21.(수) ~ 8. 29.(목) [7박 9일]

○ 방 문 국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방 문 단 : 10명

- 의 원(6)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6명
- 직 원(4) : 전문위원실 직원 4명

3 내 용

○ 오스트리아의 노인 복지시설·어린이 체험박물관 방문을 통해 전북도의 관련 사회복지 시설과 비교시찰

○ 오스트리아 친환경 폐기물 처리정책 및 크로아티아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등 벤치마킹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자원과 문화유산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육성지원 정책 벤치마킹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방문을 통해 선진 의회운영 사례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시책 비교분석

4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 고
8. 21. (수)	전주,인천 ⇒ 오스트리아 (비엔나)	○ 도의회 집결 후 출발(06:00) ○ 인천 국제공항 집결·출발(12:50) (KE937)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도착(17:10) ○ 비엔나 호텔숙박	1일차
8. 22. (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 (기관방문)** **- Haus St. Teresa 노인복지센터** **-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 비엔나 → 그라츠 이동 ○ 그라츠 호텔숙박	2일차
8. 23. (금)	오스트리아 (그라츠)	**○ (기관방문)** **- Frida&fred 어린이박물관** ○ 그라츠 → 류블랴나 이동 ○ 문화탐방 (류블라냐성, 프리세렌광장 등) ○ 류블랴나 호텔숙박	3일차
8. 24. (토)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블레드)	○ 연수간담회(자료정리 등) ○ 류블랴나 → 블레드 이동 **○ 생태환경 문화 탐방 (블레드 성, 블레드 호수 등)** ○ 블레드 → 자그레브 이동 ○ 자그레브 호텔숙박	4일차
8. 25. (일)	크로아티아 (플라트비체)	○ 자그레브 → 플리트비체 이동 ○ 문화탐방 (라스토케 마을) **○ (기관방문)**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플리트비체 → 자그레브 이동 ○ 자그레브 호텔숙박	5일차
8. 26. (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 (기관방문)** **- RIMAC 자동차** ○ 문화탐방 (자그레브 대성당, 반옐라치치 광장 등) ○ 자그레브 호텔숙박	6일차
8. 27. (화)	오스트리아 (비엔나)	○ 자그레브 → 비엔나 이동 **○ (기관방문)** **-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 비엔나 호텔숙박	7일차
8. 28. (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 (기관방문)** **- Spittelau 쓰레기 소각장** ○ 문화탐방 (쉔부른 궁전 등)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출발(18:40) (KE938)	8일차
8. 29. (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 인천,전주	○ 인천 국제공항 도착(11:50) ○ 도의회 도착(16:00)	9일차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계		10명		
환경복지 위원회 (6명)	위원장	최 ○ ○	男	
	부위원장	성 ○ ○	男	
	위 원	이 ○ ○	男	
	위 원	이 ○ ○	男	
	위 원	한 ○ ○	男	
	위 원	황 ○ ○	男	
환경복지 전문위원실 (4명)	전문위원	이 ○ ○	男	
	주 무 관	박 ○ ○	男	
	주 무 관	김 ○ ○	男	
	주 무 관	이 ○ ○	男	

Ⅱ 연수국가 일반현황

1 오스트리아

○ 일반현황

국명	오스트리아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Austria)
위치	유럽 중부(동경 13° 20', 북위 47° 20')
면적	83,879㎢(한반도의 약 2/5)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2018 기준
기후	온난한 대륙성 기후(알프스 산맥은 강수량이 높고 겨울이 긴 편)
수도	비엔나(Vienna)
인구	879만명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2018 기준
주요도시	비엔나, 그라츠, 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민족	오스트리아인(91.1%),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1.6%), 독일인(0.9%)
언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63.2%), 이슬람(6.2%), 개신교(3.9%), 동방정교회(2.2%), 무교 및 기타(17.2%)
건국일	1156년 9월 17일
정부형태	연방공화제(9개주로 구성),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가원수	대통령: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총리: 세바스티안 쿠어츠(Sebastian Kurz)

○ 경제지표

GDP	4,594억 달러(2018년)
1인당 GDP	53,764달러(2018년)
화폐단위	유로화(Euro)
환율	1€(유로) = 1,385.52원 (2019.8.14. 기준, KEB하나은행)
외환보유고	121억 달러(2018년)
산업구조	도소매·금융보험·부동산 등 3차 산업(서비스업) 70.3%, 에너지·건설 및 제조업 등 2차 산업 28.4%, 농림축산업·어업 등 1차 산업 1.3%
교역규모	수출: 1,311억 유로(2017년) 수입: 1,357억 유로(2017년)
교역품	수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엔진 등 수입: 자동차, 의약품, 석유제품, 원유, 천연가스, IT관련제품 등

○ 한국-오스트리아 관계

국교수립	1963년 5월 22일
체결협정	무역협정(1971년 10월 30일), 사증면제협정(1979년 6월 24일), 항공협정(1979년 7월 3일), 사회보장협정(2010년 10월 5일), 워킹홀리데이(2012년 9월 17일), 산림기술교류협약(2012년 10월 20일)
교역규모	수출: 15.8억 달러(2018년) 수입: 9.2억 달러(2018년)
교역품	한국의 수출: 반도체, 휴대전화, 승용차 등 한국의 수입: 반도체, 자동차부품, 재생섬유 등
교민	2,500 여명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가. 지리 · 기후

-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2/3가 동알프스의 산지이며, 도나우강과 그 지류인 인강, 무르강, 드라바강 등이 동서로 흐르면서 이루어 놓은 골짜기가 산지를 삼분한다. 이들 각각은 북알프스 · 중앙알프스 · 남알프스이다. 중앙알프스는 고기(古期)에 형성된 화강암 · 편마암 · 운모편암 등의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알프스 동체(胴體)라고도 부른다. 남북의 산악지대는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북석회암 알프스, 남석회암 알프스라고 부르고 있다.

- 최고봉은 중앙알프스의 호에타우에른산맥의 그로스글로크너산(3,798m)이다. 석회암 알프스는 험준한 데다 암벽이 노출되어 험한 산릉(山陵)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설선(雪線)은 거의 2,700~2,900m이며 그보다 높은 곳은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다.

- 알프스 산중에는 U자곡 · 현곡(懸谷) · 빙하호 퇴석(堆石) · 양배암(羊背岩) 등 각양각색의 빙하지형이 빙하기(氷河期)의 유물로서 남아 있다. 알프스 산지 외에 국토의 1/3을 차지하며 잘츠부르크와 빈을 연결하는 구조선 부근에는 동서 260km, 너비 10~20km의 구릉지로 알프스 빙하가 이루어놓은 퇴석이다. 도나우강 이북은 알프스 동체부와 같은 오랜 지질구조를 가진 보헤미아 숲의 일부인데 독일의 중위산지(中位山地)에 가깝다. 빈 북동부의 200~400m의 낮은 구릉지는 카르파티아산맥과 연속된 산지의 일부이다.

-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에 있으므로 동쪽에서는 대륙성 기후, 서쪽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두 기후의 점이지대이다. 지중해의 영향은 적어 남쪽 지방에 국한된다. 바람은 북부지방에서는 서풍이, 알프스 동부지방에서는 북서풍 또는 북풍이 강하며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국지적(局地的)인 풍계(風系)가 형성되어 있다. 강수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되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나. 현대 오스트리아의 역사

- 오스트리아는 1945년 3월 빈에 소련군이 진출하여 미국·영국·프랑스·구소련 4개국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55년 5월 점령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으로 주권 독립을 회복하면서, 독일과의 합방 및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였다.

- 국민의회는 1955년 10월 26일에 영세중립에 관한 법률을 채택, 1955년 오스트리아국가조약에 의한 영세중립국으로 주권이 회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국가의 방위와 안전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연방군이 조직되어 있으며 국민개병제도이다. 경제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에 따라 경제가 재건되었으며 입헌제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연방공화국으로서 3권 분립을 견제하고 있다.

- 1986년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였고 발트하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가톨릭적인 보수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국민당과 사회민주노동당의 후신인 사회당이 의회의 주요세력으로 국정을 안정 발전시켜왔다.

- 공산당은 부진하여 1959년이래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독일주의를 제창하는 자유당 등이 약간 세력이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중도노선을 취하고 있다. 연방의회 의원은 빈과 9개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지방의회가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9개주의 연방주 간의 공동체 의식은 희박한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에 그 이유의 하나가 있다.

2 슬로베니아

❍ 일반현황

국명	슬로베니아공화국(Republic of Slovenia)
위치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동경 14° 49', 북위 46° 07')
면적	20,273㎢ (한반도의 1/11)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수도	류블랴나(Ljubljana)
인구	208만명 *자료원 : 2019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주요도시	류블랴나, 예서니체, 노보메스토, 톨민
민족	슬로베니아인(83.1%), 세르비아인(2%), 크로아티아인(1.8%) 등
언어	슬로베니아어
종교	가톨릭교(57.8%), 이슬람교(2.4%), 정교(2.3%) 등
건국일	1991.6.25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공화제, 양원제
국가원수	대통령 :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총리 : 마리안 샤레츠(Marjan Šarec)

○ 경제지표

GDP	487억 달러(2017년)
1인당 GDP	23,5976달러(2017년)
화폐단위	유로화(Euro)
환율	1€(유로) = 1,385.52원 (2019.8.14. 기준, KEB하나은행)
산업구조	농업 등 1차 산업 2.3%, 공업 등 2차 산업 34.1%,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63.6%
교역규모	수출: 296억 달러(2011년) 수입: 310억 달러(2011년)
교역품	수출: 공업제품, 기계류, 의약품, 가구, 비철금속 등 수입: 기계류, 교통설비, 화학제품, 식료품, 연료 등

○ 한국-슬로베니아 관계

국교수립	1992년 11월 18일
체결협정	과학·기술협력 협정(1994년 11월), 문화협력협정(1997년) 원자력안전협력협정(2001년)
교역규모	수출: 19.1억 달러(2017년) 수입: 1.1억 달러(2017년)
교역품	한국의 수출: 자동차부품, 강판, 조명기기, 무선기기 등 한국의 수입: 전동기, 플라스틱제품, 주철, 의약품 등
교민	50 여명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가. 지리 · 기후

-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알프스 산맥의 동단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대부분이 알프스 산지이다. 슬로베니아 최고봉인 트리글라브봉(2,864m)에서 발원하는 사바강이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다뉴브강에 흘러 들어간다. 오스트리아에서 발원한 드라바강도 슬로베니아의 북동부를 지나간다. 모두 다뉴브강의 상류에 해당하므로 슬로베니아의 공업화에 따른 하천 오염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남부에는 석회암 대지가 침식되어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펼쳐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길이 24km에 달하는 거대한 포스토이나 석회동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기후는 대체로 서안해양성 기후이다. 지하자원은 석탄·갈탄·납·아연·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 전 국토 중 경작가능지 8.53%, 경작지는 1.43%이며 산림 및 기타가 90%나 된다.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홍수와 지진이다.

나. 역사

- 6세기에 남하한 남슬라브족 중에서 일부가 사바강 유역을 중심으로 627년 슬로베니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들을 슬로베니아인이라고 부른다. 8세기에는 바이에른과 프랑켄에 속했으나 그후 카롤링거왕조의 프랑크왕국 치하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서유럽문화권에 편입되었다. 슬로베니아는 10세기에 신성로마제국, 14세기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家)의 지배를 받았다.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슬로베니아는 영국과 러시아의 연합국에 가담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전쟁을 치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오스트리아제국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호기임을 알아차리고 남슬라브

족임을 내세워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하였다. 같은 남슬라브족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와 함께 종교적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을 세웠다. 1918년 12월 베오그라드에서 왕국의 성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른바 베오그라드왕국의 영토에는 과거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해 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비롯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보이보디나, 달마티아, 마케도니아와 함께 슬로베니아도 편입되었다. 1929년에는 유고슬라비아로 불렸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에 점령되었으나,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성립과 함께 그의 일원이 되었다.

- 1989년 9월 슬로베니아는 구유교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으로부터의 이탈을 명시한 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 4월 슬로베니아 공화국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공산당이 패배하여 5월에 비(非)공산정권이 발족하였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두 공화국은 연방 최대 민족인 세르비아 민족에 대한 반감과 경제적으로도 몬테네그로 등 농업중심의 연방 남부 공화국에 대한 경제부담이 컸다. 그래서 1990년 7월에는 주권을 선언하고 12월 국민투표 결과 90%가 독립을 지지하여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방을 유지하려는 세르비아와의 대립이 격화되어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를 침공, 슬로베니아 방위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수도 류블랴나 공항을 연방군이 폐쇄하였다. 그러나 곧 휴전으로 10월에 연방군이 철수하였다. 1991년 12월 독일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고, 1992년 1월에 EU도 독립을 승인하였다. 5월에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함께 UN에 가입하고, 8월 신유고슬라비아연방이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여 12월에는 독립 후 최초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3 크로아티아

❍ 일반현황

국명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위치	중남부 유럽(동경 15° 30', 북위 45° 10')
면적	56,594㎢ (한반도의 1/4)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17 기준
기후	지중해성(아드리아해 연안), 대륙성 기후(북동부 지역)
수도	자그레브(Zagreb)
인구	410만명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17 기준
주요도시	자그레브, 스플리트, 오시예크, 두보르니크
민족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등
언어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종교	가톨릭(86.3%), 세르비아정교(4.4%), 회교도(1.5%) 등
건국일	1991.6.25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단원제
국가원수	대통령 :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Kitarovic) 총리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 경제지표

GDP	599억 달러(2018년)
1인당 GDP	14,788달러(2018년)
화폐단위	쿠나(Kuna)
환율	1HRK(쿠나) = 183.24원 (2019.8.14. 기준, exchange-rates.org)
외환보유고	199억 달러(2018년)
산업구조	농림수산업(6.8%), 건설업(8.1%),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10.9%), 호텔 및 요식업(4.3%), 통신·교통 및 물류(8.4%), 금융 및 부동산·임대업(24.2%), 공공사업·사회보장·국방·교육 및 복지(17.7%), 광업 및 채굴· 제조업(19.2%)
교역규모	수출: 104억 달러(2009년) 수입: 211억 달러(2009년)
교역품	수출: 석유, 선박,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수입: 석유, 자동차 부품, 의약품, 전기에너지, 석유가스 등

○ 한국-크로아티아 관계

국교수립	1992년 11월 18일
체결협정	무역협정(1995년 11월 15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01년 1월 16일), 무역협정 종료(2013년 9월 12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 종료 한-EU FTA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2016년 1월 1일) 항공협정(2016년 9월 15일) 한-EU 기본협정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2018년 8월 1일)
교역규모	수출: 3.3억 달러(2017년) 수입: 0.2억 달러(2017년)
교역품	한국의 수출: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한국의 수입: 정밀화학 원료 등
교민	200 여명 *자료원 : 주크로아티아 한국 대사관

가. 지리 · 기후

- 크로아티아의 국토는 전체적으로는 초승달 모양으로 좁고 긴 달마티아 해안평야, 디나르알프스산지, 동부의 도나우평원 등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헝가리평야의 일부인 동부의 도나우평원은 도나우강의 지류인 사바강과 드라바강 유역의 매우 비옥한 충적평야로서 농업에 아주 적합하다. 남서부의 디나르알프스산계에는 디나르알프스산맥 외에 엘리카카펠라·말라카펠라·플레세바카산맥 등이 아드리아해안을 따라 뻗어 있다. 달마티아 해안평야는 침강해안으로 해안에는 익곡(溺谷)이 발달되어 있으며 연안의 1,000여 개 섬이 열도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해안평야는 지중해성 기후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 서부 유럽으로부터 에게해와 터키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아드리아해의 긴 해안선은 연안 교통에 영향을 준다. 경작가능지는 25.82%, 경작지는 2.19%, 삼림 및 기타 71.99%(2005년)이다.
- 아드리아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이 따뜻하며 리에카의 1월 평균기온은 5.3℃이다. 디나르알프스산맥에서 동부 지방 사이는 온난**습윤기후와 서안해안성 기후이나 겨울의 추위는 심한 편이다. 국토의** 3분의 1이 삼림이지만 산지에는 식생이 드물어 양의 방목이 이루어질 뿐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갈탄·석유·천연가스·보크사이트·철광석 등이 매장되어 있다.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에 의한 삼림 황폐와 연안 해역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역사

- 크로아티아의 선주민은 일루리아족으로 기원전 3세기에 해안지방에서는 로마와 접촉을 가졌고, 내륙지방에서는 켈트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초에 고트족, 5세기 전반에 훈족의 침입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6세기에는 북쪽에서 슬라브인과

아바르인이 들어왔고, 7세기에는 슬라브인이 대거 이주하여 왔으나 당시 이들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 9세기에 들어와 슬라브라는 이름과 함께 크로아티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9세기에 북부는 프랑크왕국, 동부는 동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925년 크로아티아의 트미슬라브공(公)이 왕위에 오르면서 비로소 크로아티아 왕국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1102년 헝가리왕을 통치자로 하는 헝가리-크로아티아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1202년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크로아티아의 해안산지인 달마티아의 일부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15세기 후반부터 오스만투르크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남(南)헝가리의 모하치전투에서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연합군이 투르크군에게 패하였다. 러시아-투르크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자 합스부르크가(家)의 페르디난도 1세가 크로아티아의 왕위를 차지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헝가리의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 제1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트리아가 패배하자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에서 벗어나 1918년 이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왕국(일명 베오그라드왕국, 1929년 이후는 유고슬라비아왕국)의 일부가 되었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하나가 되었다.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과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1990년 4월 크로아티아 공화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공산당이 퇴진하고 비공산 민족주의 정권이 탄생하였다.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하려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연방 최대인 세르비아 공화국과 민족적으로 강하게 대립하였고, 특히 경제적으로 농업 중심의 남부 각 공화국에 대한 경제부담이 커 불만이 쌓여왔다. 1991년 5월 주민투표에서 '주권국가에 의한 국가연합' 에

대한 찬성이 94%에 달해 1991년 6월 독립선언을 하였다. 결국 크로아티아는 연방 유지를 지향하는 세르비아 공화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맞서 연방 이탈에 반대하는 세르비아와 전쟁상태에 돌입하였고, 국내의 세르비아인들은 따로 '크라이너' 라는 공화국을 수립하여 크로아티아측과 맞섰다.

- 같은 해 6월에는 연방군대가 크로아티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내전에 돌입하였고 9월에는 연방군이 크로아티아에 대공세를 가하였다. 12월에 세르비아인의 크라이너 자치구가 크로아티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역시 12월에 독일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1월 EU도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UN은 3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 지구인 동·서슬라보니아와 크라이너 세 지구에 30개국 1만 4000명의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정전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크로아티아는 5월에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함께 UN에 가입하였다. 1993년 1월에는 크로아티아군이 정전을 파기하고 크라이너를 침공하여 발발한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1994년 1월 신유고연방측과 관계정상화 협정에 조인하고, 같은 해 3월 크라이너 지역 세르비아계와 휴전 협정에 서명하여 오늘에 이른다.

Ⅲ 국외 연수내용 및 시사점

1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

❑ 방문목적

- 오스트리아의 선진 복지국가 모델로 운영 중인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의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등을 청취하여 향후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2.(목) 10:00
- 면 담 자 : Angelika Csengel, Claudia Zimmermann 등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 관계자
- 주　　소 : Erzherzog-Karl Straße 129b, 1220 Wien/Austria
- 홈페이지 : https://www.caritas-pflege.at/wien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내　　용
  -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의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오스트리아의 선진 노인복지 시스템 벤치마킹



❑ 주요내용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 현황>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은 Caritas 교구 소속의 노인복지 시설로서, 2013년에 설립되어 201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음
-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의 수용시설은 124개의 1인실과 6개의 2인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하는 노인들이 본인취향의 원하는 가구와 침대, 식사, 방문일정 등을 요양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 결정하여 거주하는 것이 특징인 노인복지 주거시설임
-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에는 총 112명의 직원이 5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노인별 각종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 사 점

-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은 기존 우리나라의 병원같은 요양시설과 달리 이용노인 본인들이 살던 편안한 일반 가정집처럼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선진복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Haus St. Teresa 노인요양원의 슬로건인 “The decision is yours(결정은 당신의 것이다.)” 처럼 본인의 가구나 침대를 요양원에 가져오고, 방문시간을 본인이 결정하고, 빨래나 요리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요양생활의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임

- 또한, 요양원 건물 안에는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취미시설, 미용실, 예배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여가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또한, 노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용시설이 124개의 1인실 및 6개의 2인실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우수한 복지시설과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1개월에 약 3,600유로(약 470만원)정도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오스트리아 복지등급 3등급부터는 오스트리아 국가연금에서 최대 86%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 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노인들도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 노인 복지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사진



▲ 시설현황 청취



▲ 시설이용 노인 면담



▲ 기념촬영



▲ 기념품 전달

2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 방문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 발생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응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청취하여 향후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2.(목) 14:00
- 면 담 자 : Alexander Buck 등 환경정책 담당자
- 주　　소 : Spittelauer Lände 5, 1090 Vienna/Austria
- 홈페이지 : https://www.umweltbundesamt.at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질의답변 → 사진촬영
- 내　　용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 발생에 따른 오스트리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계획 등 현황 청취

❑ 주요내용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현황>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연방환경청은 1985년 환경제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500여명 전문가가 소속되어 연구하고 있는 공공기업 구조인 환경전문 기관임
- 오스트리아의 환경과 유럽의 주요 환경을 연구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은 기후・물・지속가능한 에너지・자연생태 환경 등 55개 이상의 다양한 환경분야를 연구하고 있음

❑ 시 사 점

-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EU에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2002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 2012년까지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880만으로 과거 19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13%정도 감축하여,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따라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시급한 상황임
  - 오스트리아의 1년 내외 단기간 온실가스 배출분석에 따르면, 배출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냉·난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상황, 수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의 발전량, 국내 경제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로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이 오르면서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는 다시 기온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업시설이나 가정 등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다 보니,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 세계적 전력의 70% 정도를 석유, 가스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생산 비중을 신속하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국가적인 대응방법은 혁신적인 기후변화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 방문기관 사진



▲ 시설 전경



▲ 기념촬영

3 그라츠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

❑ 방문목적

-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의 비교시찰을 통해 최근 개관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향후 운영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3.(금) 14:00
- 면 담 자 : Joerg Ehtreiber 관장, Barbara Lamot 등 어린이박물관 관계자
- 주　　소 : FRida & freD - Das Grazer Kindermuseum
  Friedrichgasse 34 A-8010 Graz/Austria
- 홈페이지 : http://www.fridaundfred.at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내　　용
  -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어린이 체험시설로 평가받는 FRida & freD 어린이 박물관의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등



❑ 주요내용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 현황>

-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위치한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은 2003년 개관이후 어린이 체험시설, 기획전시회, 어린이 극장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박물관임
-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은 민간시설이지만 그라츠 시의 보조금과 박물관 입장료와 어린이극장, 세미나실 등 시설 이용료, 기념품 판매수입을 통해 운영중인 시설임.
- 특히, 3~7세 어린이가 다양한 컬러의 물감으로 자유롭게 미술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와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화폐의 생산과정 및 돈의 올바른 사용을 교육하는 등 돈을 주제로 하는 특별기획 전시회가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의 특징임





-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2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임. 또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85,000여명의 인원이 이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시설이용료는 3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 5.5유로(약 7,1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가족패스와 연간패스 등 할인혜택이 있음

❑ 시 사 점

-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다수의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과 학술·문화교류를 하고있는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어린이시설에서 많이 찾는 저명한 어린이 체험시설임
- 기존의 전시·기획 위주의 과거 어린이회관 등과는 달리 최근 건립된 우리나라 어린이 체험박물관들에도 많은 영향을 준 FRida & freD 어린이 박물관은 관장인 Joerg Ehtreiber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 Joerg Ehtreiber는 2003년부터 17년간 그라츠 FRida & freD 어린이 박물관 관장을 맡아 특색있고 창의적인 기획전시회와 박물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 체험시설 등의 개발로 세계 각지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초청강연을 요청받고 있음
  - 관장취임 이전에는 박물관의 전시기획, 전시품제작, 이벤트 등 박물관 관련 전시전문 회사인 ㈜MTC의 CEO와 비엔나 기술박물관의 전시부장, 큐레이터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라츠 FRida & freD 어린이 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음
- FRida & freD 어린이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기획하여 어린이 정서함양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들의 미래 직업체험 시설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 등을 공연하는 어린이극장, 아동심리 상담, 어린이 생일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운영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있음
- 최근 개관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타 시·도의 어린이체험 박물관과 차별되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시설이 아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참여하는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방문기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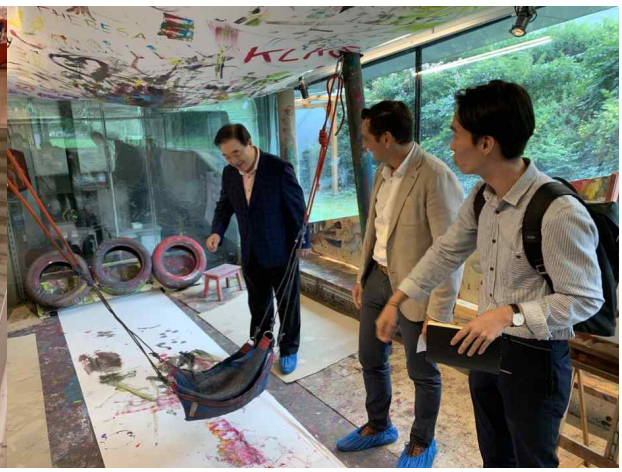
▲ 시설현황 청취



▲ 어린이 체험시설 견학



▲ 어린이 체험시설 전경



▲ 어린이 체험시설 견학



▲ 기념촬영



▲ 기념품 전달

4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방문목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자원을 벤치마킹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5.(일) 14:00
- 면 담 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시설안내 관계자
- 주　　소 : Plitvička jezera, HR 53231, Crotia
- 홈페이지 : https://np-plitvicka-jezera.hr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사진촬영
- 내　　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을 통해 자연생태 환경자원 벤치마킹

❑ 주요내용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현황>

-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에 위치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체면적 300㎢ 중 2%만 관광객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여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생태문화 관광지임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현재 6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지역주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우선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또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총 8개의 호수 시스템 투어, 4개의 하이킹 트레일 코스로 구성되어 2018년에는 약 1,700만명이 방문하였음
- 하지만, 방문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생태자연 환경파괴 등의 문제발생으로 2019년부터는 1시간에 1,300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였음

❑ 시 사 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연간 1,70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간당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국립공원 내 관광객 통행로 등을 자연목재로 설치하여 최소한의 시설물만 존재하고 대부분의 자연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 또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공원입장료, 주차요금, 호텔・식당 등의 자체 운영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2019년~2028년까지 10년 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환경적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방문기관 사진



▲ 기념촬영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안내도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전경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광객 통행로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내 문화공연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내 여객선

5 RIMAC 자동차

❑ 방문목적

-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 자동차 회사인 RIMAC 자동차의 최신 기술력과 성공사례 청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6.(월) 14:00
- 면 담 자 : Petar Svetec RIMAC 자동차 마케팅팀장
- 주　　소 : Ljubljanska 7, 10431, Sveta Nedelja, Crotia
- 홈페이지 : https://www.rimac-automobili.com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내　　용
  - 크로아티아 고성능 친환경 전기자동차 회사인 RIMAC 자동차를 방문하여 RIMAC 자동자의 최신 기술력과 성공사례 청취



❑ 주요내용

<RIMAC 자동자 현황>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위치한 RIMAC 자동차는 CEO인 Mate Rimac에 의해 2011년 회사가 설립되어 현재 250명의 직원이 고성능 전기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RIMAC 자동차의 성공을 이끈 Concept one(좌)과 개발중인 C_TWO(우)>

- 2019년 5월 현대・기아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자동차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RIMAC 자동차와 9천만 달러(약 1,072억원) 규모의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RIMAC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개발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기술개발을 위해 RIMAC 자동차와 전략투자 결정, 출처 : 현대・기아자동차>

❑ 시 사 점

- 미래에는 현재 자동차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대해 세계 유명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전기에너지 기술은 차세대 중요한 대체 에너지임
- 향후 전라북도에서도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전기, 수소 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방문기관 사진



▲ 시설현황 청취



▲ 전기자동차 CONCEPT ONE



▲ 기념촬영



▲ 기념품 전달

6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 방문목적

-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적인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구성 및 전반적인 의회 운영사항 등 청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7.(화) 14:00
- 면 담 자 : Seethaler Veronika 등 연방의회 홍보담당자
- 주　　소 : Dr.-Karl-Renner-Ring 3, 1017 Wien/Austia
- 홈페이지 : https://www.parlament.gv.at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사진촬영
- 내　　용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본회의장 및 관련 홍보관 등 시설견학을 통한 연방의회 구성 및 전반적인 의회 운영사항 등 청취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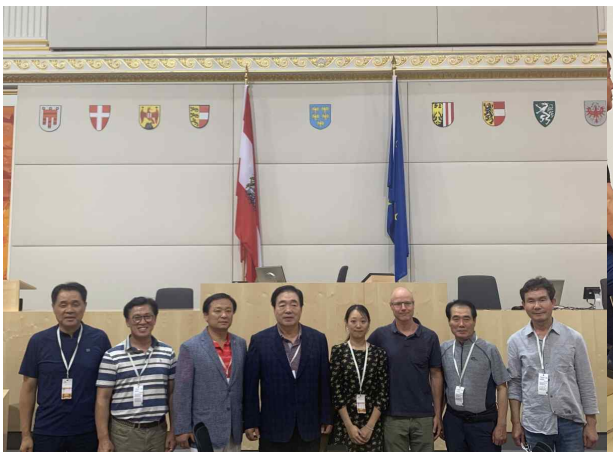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상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현재 9개 연방주 의회에서 선출된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됨
- 하원은 5년 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183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 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짐

❑ 시 사 점

-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정치, 문화, 행정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점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방문기관 사진



▲ 연방의회 본회의장 기념촬영



▲ 연방의회 시설현황 청취

7 Spittelau 쓰레기 소각장

❑ 방문목적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의 친환경적인 운영방법 및 도시홍보 효과 청취, 그리고 도시 내 주민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등 벤치마킹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8.(수) 14:00
- 면 담 자 : Martina Krobath 등 쓰레기소각장 홍보담당자
- 주　　소 : Spittelauer Lände 45, 1090 Wien/Austia
- 홈페이지 : https://www.wienenergie.at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 현장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내　　용
  - 비엔나 시내 안에 위치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방문을 통해 친환경적인 운영방법 청취 및 주민갈등 해결방안 등 벤치마킹



❑ 주요내용

<슈피텔라우(Spittelau) 쓰레기 소각장 현황>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 위치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던 기존의 소각장을 1992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으로 재건축하여 현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음



- 하루평균 250여대의 청소차량이 비엔나 시내 및 인근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처리를 하는데, 친환경 첨단기술을 도입해 폐기물을 소각 후 생성된 산성·금속성분은 물 등으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은 배출하고, 고체성분은 따로 분류하여 지하에 영구보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비엔나 시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25만톤의 폐기물을 소각 후 약 57만 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비엔나 시내 약 6만 가구에 전기·난방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음
-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공기업인 '빈에너지(wienenergie)' 에서 운영되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및 소각장 직원은 모두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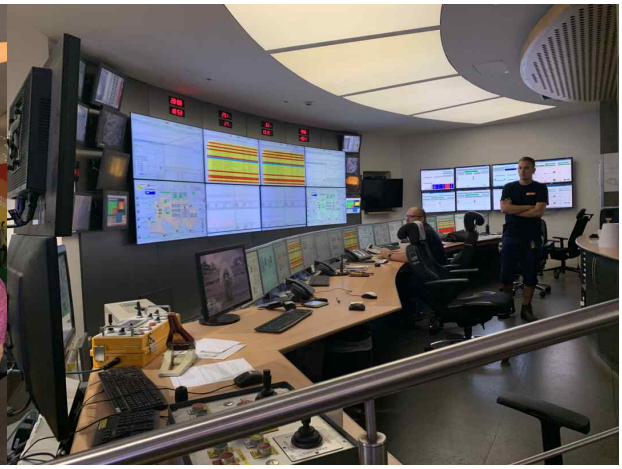
❑ 시 사 점

- 1971년 비엔나 최초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설립된 당시에는 주민혐오시설이었지만, 1986년 큰 화재로 인해 소각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어 대대적인 시설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쓰레기 소각장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당시 비엔나 시장이었던 Helmut Zilk 시장은 오스트리아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서에게 전체 디자인을 담당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재건축을 진행하여 현재는 비엔나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음
  - 또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에는 재건축 과정에서 최신 대기오염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그 결과 주민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원 활용과 관광객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전라북도에서도 주민혐오시설인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곳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재건축 사례처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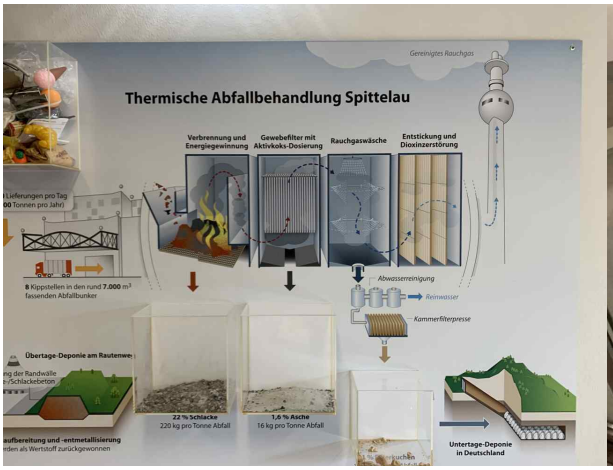
❑ 방문기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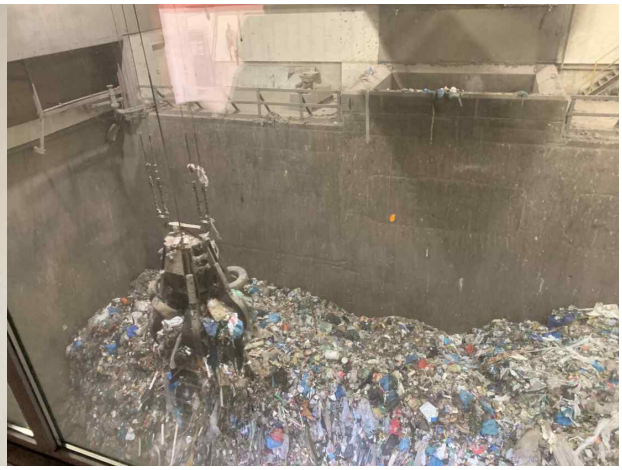
▲ 시설현황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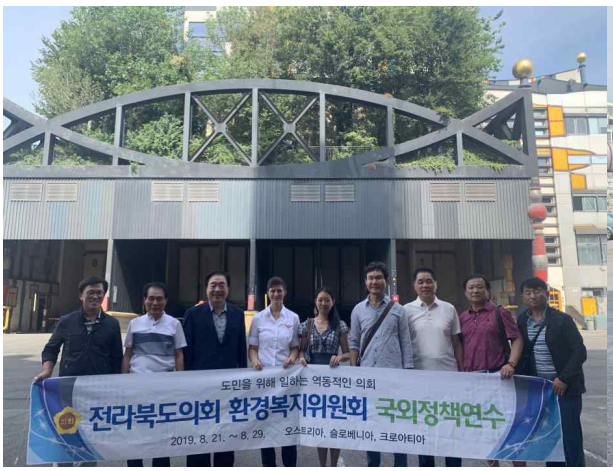
▲ 소각장 중앙제어 상황실



▲ 쓰레기 소각처리 과정



▲ 수집된 쓰레기처리 과정



▲ 기념촬영



▲ 기념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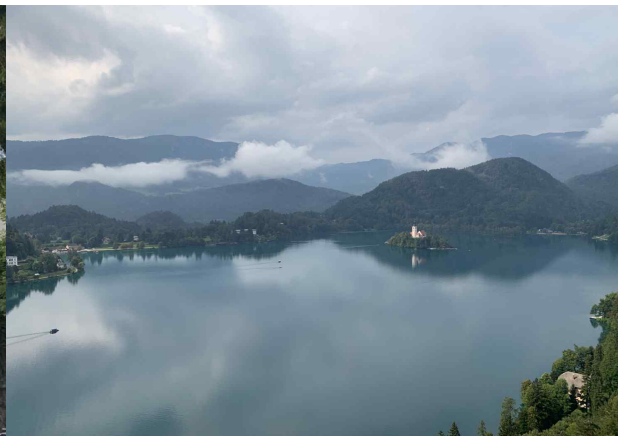
8 기타 방문지

❑ 슬로베니아 블레드성

- 일 시 : 2019. 8. 24(토) 10:00
- 장 소 : Grajska cesta, 4260 Bled, Slovenia

【주요내용】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의 북서쪽에 위치한 블레드 성은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 '흑기사' 촬영지로 국내에도 널리 유명해져 슬로베니아를 찾는 대한민국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블레드성은 1011년 블레드 시의 절벽 위에 르네상스 건축방식으로 세워진 중세의 성으로 슬로베니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 크로아티아 라스토케 마을

- 일 시 : 2019. 8. 25(일) 10:00
- 장 소 : Unnamed Road, 47240, Rastoke, Croatia

【주요내용】

-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라스토케는 우리나라 인기예능 프로인 '꽃보다누나' 촬영지로 국내에도 상당히 유명해진 관광명소임.
- 라스토케는 마을로 흘러든 물줄기가 작은 폭포들을 이루고 있어 '요정의 마을' 로 불리우는 작은 동화같은 마을이다. 현재는 이곳 주민들은 마을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물레방아를 돌리고 농사를 지으며, 관광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 오스트리아 쉔브른궁전

- 일 시 : 2019. 8. 27(수) 14:00
- 장 소 : Schönbrunner Schloßstraße 47, 1130 Wien, Austria

【주요내용】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 위치한 쉔브른 궁전은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유럽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다.
- 쉔브른궁전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과거 합스부르크 왕가의 강력한 위상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비엔나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Ⅳ 연수후기

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 찬 욱

지독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 전국은 폐기물로 몸살을 앓았다. 불법폐기물이 국토 곳곳에 방치됐고, 청정 전라북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도심에도 쓰레기가 쌓여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악취를 풍기며 썩어 가고 있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중앙부처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일시적인 조치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이를 두고 님비현상이라 일컫고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님비현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친환경 예술품이 된 소각장이 있어 공존의 길로 가는 해답을 찾고자 연수의 길로 들어섰다.

흔히들 비엔나 하면 왈츠와 모차르트를 떠올리며 예술적인 관광지로 연상하기 쉽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엔나가 도시 공해에 대해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곳이며 이것이 정부와 주민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기술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버스를 타고 가며 바라다 보이는 곳에 소각장이 위치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저 멀리 산속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소각장이 가까워질수록 청소차량과 청소부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었지만 악취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이곳은 바로 슈피테라우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혐오시설로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동화 속 건물처럼 예쁜 색감과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7번에 걸친 필터링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정화해 오염을 줄이고,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가 비엔나 난방에너지의 무려 30%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단순히 환경기술을 공부하고 답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한 방문이라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슈피테라우 소각장이 처음부터 비단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다. 1971년 소각장이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밋밋하고 건조하며, 기능성만 강조한 건물이었고 126m 높이로 치솟은 굴뚝은 흉물스러울 정도였다. 점차 주변이 개발되면서 한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1986년 소각장에 불이 났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던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개보수를 반대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이곳도 갈등과 반목으로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행정은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리모델링을 약속했고 지금의 꽃을 피운 것이다.

험난한 터널을 지나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합을 이뤘을까 생각해본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 회귀해 보자. 눈엣가시였던 소각장이 불이 났고 이참에 마을에서 쫓아낼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민의 답변에 담겨있다.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곳이 우리 지역이라면 안전하게 지어 달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소각장으로 전 세계에서 공무원, 학자, 주민 등 5천여 명이 견학을 오는 이곳.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에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길을 생각해본다.

참고 언론보도 자료

전북연합신문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002면 종합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Haus St. Teresa 요양원과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을 방문해 2019년 상임위 국외 정책연수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 환복위 국외정책연수 스타트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 선진지 견학 추진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Haus St. Teresa 요양원과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을 방문해 2019년 상임위 국외 정책연수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들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복지국가 우수시설로 평가받는 Haus St. Teresa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운영 현황과 우수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도내 사회복지 시설들과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을 찾아 최근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발생 및 자연 생태환경 파괴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벤치마킹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내실있는 정책연수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국외 정책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정책연수를 추진중이다.

남은기간 동안에는 오스트리아의 Frida&fred 어린이박물관, Spittelau 쓰레기 소각장,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시청, 크로아티아 RIMAC자동차,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윤배 기자
seay b2000@daum.net

전북도민일보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015면 사람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선진지서 견문 넓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Haus St. Teresa 요양원과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을 방문하여 2019년 상임위 국외 정책연수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복지국가 우수시설로 평가받는 Haus St. Teresa 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과 우수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도내 사회복지 시설들과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을 찾아 환경정책 관련 담당자를 면담하여 최근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발생 및 자연 생태환경 파괴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에 따른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응방안을 벤치마킹하였다.

이방희 기자